

《七眞傳》의 形成過程과 思想內容 研究

金正起*

< 목 차 >

1. 前言
2. 《七眞傳》의 형성과정과 배경
 - 2.1 一世代 七眞傳記文學
 - 2.2 二世代 七眞傳記文學
3. 《七眞傳》의 人物形象
4. 《七眞傳》의 思想內容
 - 4.1 三教同源의 道同思想
 - 4.2 性命雙修의 內丹思想
 - 4.3 清靜無爲의 修行思想
5. 結語

1. 前言

《七眞傳》¹⁾은 全眞敎의 창시자 王重陽(1112-1170)과 그의 일곱 제자 七眞(全眞七子)의 수행과정을 기록한 장회체 종교소설이다.²⁾ 이 소설은 淸末 光

* 한서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1) 《七眞傳》의 원래 명칭은 《七眞因果傳》이지만, 흔히 《七眞傳》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七眞傳》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 2) 《明清小說叙錄》에서는 《칠진전》을 장회소설과 신마소설로 분류하고 있다. 신마소설이란 명칭은 노신의 《中國小說史略》에서 왔고, 주로 神과 魔가 대적하는 내용을 말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西遊記》와 《封神演義》가 있는데, 《칠진전》을 이러한 소설과 같은 부류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明清小說叙錄》은 《明清小說外圍論》의 부록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칠진전》은 장회소설이다. 일명 《칠진전》이라고도 하며, 輝庵 黃永亮의 편저라고 되어있고 모두 2권29회로 이루어졌다. 내용은 도

緒32년(1906)에 간행되어 세간에 읽혀온 이래 무수히 많은 독자들에게 도교의 진리와 사상을 전하고 동시에 신앙적 감명을 가져다 준 소설이다. 이 소설은 또 기존의 수행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수행에 뜻을 둔 사람에게는 수행의 의지를 불태우게 했던 목적소설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 소설이다. 목적소설이 다 그렇듯 《칠진전》 역시 다분히 교훈적이고 설교적이다. 그런 면에서 《칠진전》은 예술성을 중시한 순수소설이나 통속소설과는 사뭇 다르다. 순수소설이나 통속소설 등 일반적인 소설이 즐거움에 그 목적이 있다면, 종교소설은 가르침 내지는 도의 전파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소설이 어떤 목적을 앞세워 너무 教條的이거나 관념적이면 예술성을 잃게 되어 자칫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다. 《칠진전》을 소설로만 바라본다면 그 예술성을 크게 논할만하지는 못해도, 목적소설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성취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칠진전》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道敎史’나 ‘全眞敎’ 혹은 ‘왕중양과 관련된 논저 및 논문에는 대개 ‘칠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학자들의 관심은 대개 전진교의 ‘內丹’ 이론과 칠진의 사상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칠진’에 직접 관련된 논저 및 학위논문으로는 구재희의 《全眞敎 龍門派 修行論에 대한 研究》(석사), 溫睿滢의 《全眞七子傳記及其小說化研究》(석사), 葉怡菁의 《全眞女冠孫不二及孫不二元君法語之研究》(석사), 羅憶南의 《全眞敎의 七眞崇拜與相關宗敎神話研究》(석사)가 있고, 일본인 학자 蜂屋邦夫의 《金元時代道敎:

교의 일곱 연화교주에 대한 일의 기록으로 도교의 묘한 이치를 잘 드러낸 신마소설이다. 편쪽은 남본이 되는 《七眞祖師列傳》의 배가 넘고, 그 책의 내용을 대개 그대로 빌어 왔으나 보태고 뺀 것도 없지 않다. 또 향간의 속설을 취하여 역사의 기록과는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인물의 각색에 있어서는 이전의 것보다 낫다. 이 책은 2권으로 나누어져 있고, 광서32년(1906)에 광둥 문재자선서방에서 찍은 판각본이다. 또 민국7년(1917)에 사친의 회당에서 찍은 판각본도 유통되고 있다.(《七眞因果傳》章回小說。又名《七眞傳》。題輝庵黃永亮編著。2卷29回。叙道敎七位蓮花敎主之事。是書爲發揮玄學之神魔小說。卷帙几過古本《七眞祖師列傳》一倍。所衍大半直錄舊本，略作損益。多采俗說，無稽史傳。然人物斗法，有出奇制勝；情節設置，有眞幻互出，描寫較舊本爲優。光緒三十二年(1906)，廣東文在茲善書坊刻本。2冊。又民國七年四川會堂刻本。) 참고, 于平, 《明清小說外圍論·附錄》, 中國青年出版社, 1999年.

七眞研究》가 있다. 그밖에 ‘칠진’과 관련된 단편논문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張美櫻의 <金蓮正宗仙源像傳敘述分析> 및 <金蓮正宗記的敘述結構分析>, 朱麗娟의 <丘處機磻溪集研究> 등이 있지만, 아직까지 소설 《칠진전》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 논저는 보이지 않고 있다.³⁾

본 논문은 《칠진전》을 통하여 전진교의 敎義나 역사, 또는 수행방법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게 아니라, 《칠진전》이란 소설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나, 그 형성과정과 배경을 알아보고, 소설의 내용을 중심으로, 특히 손불이의 修行 과정을 통하여 작가가 형상화한 인물의 특질을 살펴볼 것이다. 또 소설이 지루함을 무릅쓰고 독자에게 전하고자 한 주의주장을 통하여 소설의 사상내용을 논구하려 한다. 연구과정에서 필자가 저본으로 삼은 것은 북경 團結出版社가 1999년에 펴낸 단행본 《七眞傳》과, 林世田 등이 교열하고 북경 종교문화출판사가 1999년에 간행한 《全眞七子傳記》라는 책이다. 《全眞七子傳記》를 저본으로 삼은 이유는 이 책 한 권에는 《七眞傳》 외에 ‘七眞’과 유관한 저서 《七眞祖師列仙傳》과 《金蓮仙史》, 그리고 《金蓮正宗仙源像傳》, 《金蓮正宗記》, 《七眞天仙寶傳》, 《七眞年譜》 등 7권이 합본으로 묶여 있어 연구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2. 《七眞傳》의 형성과정과 배경

《칠진전》은 모두 2권 29회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의 제목만 본다면 일곱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을 것같이 생각되지만 실은 칠진의 스승인 왕중양의 수행 및 전도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니 모두 여덟 사람의 全眞道士들 이야기가

3) 칠진의 수행에 관하여 국내에 소개된 저서로 비교적 자세한 것은 이원국저, 김낙필 등 역, 《내단: 심신수련의 역사2》(성균관대학교 출판부)가 있다.

4) 기타 필자가 《重陽立教十五論》, 《重陽真人金關玉鎖訣》 등 《正統道藏》에서 인용한 자료는 모두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電子版 《正統道藏》 파일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실려 있다. 개혁도교⁵⁾라 할 수 있는 全眞敎는 왕중양이 창시하고, 全眞七子의 노력으로 金元時代에 극성한 도교문파의 하나이다. 금원시대 북방에서 전진교가 발전하고 있을 때, 남송에서는 전진교와 마찬가지로 內丹을 위주로 수련하는 張伯端이 창시한 金丹道가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종리권과 여동빈의 내단사상을 근거로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元이 중국을 통일하고 전진교의 세력이 위세를 떨치자 금단도는 자원하여 왕중양의 전진교 세력 속으로 들어가 흡수 통합되었다. 그리고 왕중양의 전진교 계통을 '北宗'이라하고 장백단의 금단도 계통을 '南宗'이라 병칭하여, 북종에 칠진이 있는 것처럼 남종에도 칠진⁶⁾이 있음을 내세웠다. 금단도가 전진교에 병합되자, 명대 이후로 전진교는 본래 처음부터 북종과 남종이 있었던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남북종이 시조가 같고 근원이 같다 할지라도, 엄밀히 말해서 장백단의 금단도는 애초 전진교와 무관하게 발전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⁷⁾

전진교의 창시자 왕중양은 근래에 역사소설, 무협소설, 영화, 연속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창시한 전진교는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도교 최대 교파였을 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보다도 그 교세가 컸다. 원의 徐琰(約1220-1301)은 《郝宗師道行碑記》에서 “중양이 개창하고, 馬·譚·劉·丘·王·郝 여섯 제자가 화답하였으니, 천하의 도가 모두 왕중양으로부터 흘러나왔다.”⁸⁾고 하였다. 금원시대 이후로 비록 그 세력과 판도가 부침을 거듭하기는 하였지만 청대까지 칠진의 일곱 교파⁹⁾가 하나도 끊임없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니 도교사에서 그 비중이 막대하다 하겠다. 도교사에서 칠진이란 왕중양을 포함하고 손불이를 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대개 금원시

5) 전진교를 개혁도교, 또는 신도교라 함은 이전의 복을 구하고, 제앙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符籙派 도교에 대응해서 하는 말이다.

6) 南七眞은 張伯端, 劉永年, 石泰, 薛道光, 陳楠, 白玉蟾, 彭韶 등 일곱 사람을 말한다.

7) 참고, 구보 노리따다, 최준식역, 《道敎史》, 319쪽.

8) 이원국저, 김낙필 등 역, 《내단: 심신수련의 역사2》, 214쪽에서 인용.

9) 칠진의 교파로는 馬鈺의 遇仙派, 譚處端의 南無派, 劉處玄의 隨山派, 丘處機의 龍門派, 王處一의 崑山派, 郝大通의 華山派, 孫不二的 淸靜派가 있다. 이 중에서 淸靜單修를 중시로 하는 구처기의 용문파 판도가 가장 커서 전진교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대 초기 문헌에 보이는 경우이고, 이후 대부분의 경우는 왕중양을 八仙¹⁰⁾ 혹은 五祖¹¹⁾에 넣고, 孫淵貞,¹²⁾ 즉 孫不二(1118-1182)를 포함하여, 馬鈺(丹陽, 1123-1178), 譚處端(長眞, 1122-1185), 劉處玄(長生, 1147-1203), 王處一(玉陽, 1142-1217), 郝大通(太古, 1140-1212), 丘處機(長春, 1148-1227)를 말하는데, 이들이 이른바 북칠진이다.¹³⁾ 전진칠자는 전진교의 제2대 繼承人으로 八仙이나 五祖와는 달리 모두 실존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특히 왕중양은 유가의 기본소양이 풍부하여 그 영향으로 詩詞로써 수행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많고, 제자들과 주고받은 시문도 적지 않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¹⁴⁾ 그리고 이들이 남긴 문집은 전진교를 연구하는 중요한 1차적 사료가 되고, 전진교 교단내부인의 문헌도 적지 않다. 후대의 문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전기문학을 쓰거나, 신화적 '중교소설'을 만들었다. 《칠진전》도 그 중 하나로 보면 될 것이다. 《明清小說叙錄》에는 《칠진전》을 형식상으로는 장회소설이고, 내용상으로는 신마소설로 부르고 있지만,¹⁵⁾ 그러

10) 八仙이란 일반적으로 鍾離權, 張果老, 韓湘子, 李鐵拐, 曹國舅, 呂洞賓, 藍采和, 何仙姑 등 여덟 명의 신선을 가리킨다. 그 중 남채화와 하선고는 女仙이다. 시대별로 보면 종리권은 漢代 사람이고, 張果老, 韓湘子, 呂洞賓, 藍采和, 何仙姑 등 다섯 사람은 唐代 사람이고, 조국구는 宋代, 이철괴는 시대 불명이다.

11) 통일된 전진교 남북종이 내세운 五祖는 東華帝君, 鍾離權, 呂洞賓, 劉海蟾, 王重陽이다.

12) 《칠진전》에는 손불이의 본명을 '孫淵貞'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칠진전》 이전의 기록들은 손불이를 '富春', 혹은 그냥 '仙姑'라 부르고 있는데, 《칠진전》의 '淵貞'이란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元世祖는 至元6年(1269)년에 오조칠진에게 모두 追封하였는데, 이때 손불이의 봉호를 '淸淨淵貞順德眞人'이라 하였고, 元武宗은 至大3年(1310)에 손불이의 봉호를 '淸淨淵貞玄虛順化元君'이라 하였다. 따라서 《칠진전》에 갑자기 등장하는 '淵貞'이란 이름은 그의 봉호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13) 앞에서 인용한 서역의 《郝宗師道行碑記》 중에 '여섯 제자' 운운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도 칠진에 왕중양을 포함시키고 손불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14) 이들이 남긴 주요 문집으로는 王重陽은 《重陽全眞集》, 《重陽教化集》, 《重陽立教十五論》, 《重陽金關玉鎖訣》 등이 있고, 馬鈺은 《洞玄金玉集》, 《漸悟集》, 《神光璨》, 《丹陽眞人語錄》 등이 있고, 譚處端은 《水雲集》, 《長眞譚先生示門人語錄》 등이 있고, 劉處玄은 《仙樂集》, 《道德經注》, 《陰符演》, 《至眞語錄》, 《黃庭述》 등이 있고, 丘處機는 《大丹直指》, 《鳴道集》, 《磻溪集》, 《攝生消息論》 등이 있고, 王處一은 《雲光集》, 《西嶽華山志》, 《淸眞集》 등이 있고, 郝大通은 《太古集》, 《郝太古眞人語》, 《太易圖》 등이 있고, 孫不二는 《孫不二元君法語》, 《坤訣》, 《淸淨元君坤元經》, 《孫不二元君傳述丹道秘書》 등이 있다. (참고, 詹石窗, 《南宋金元道教文學研究》, 3~41쪽)

15) 주2) 참고.

나 이 두 명칭만 가지고는 《칠진전》의 성격을 규정짓기는 좀 부족함이 있다. 《칠진전》의 ‘傳’이란 말이 의미하듯 《칠진전》은 傳奇와 傳記의 요소가 혼합된 장회체 종교소설이라고 해야 가장 옳을 것이다.

2.1 一世代 七眞傳記文學

《칠진전》이 등장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우선은 왕중양과 칠진 본인들이 남긴 1차 자료와, 교단내외의 문인들의 이들에 대한 기록과, 石刻, 송원시대 문인들의 희곡작품(神仙道化劇),¹⁶⁾ 그리고 그 당시 유행했던 道情¹⁷⁾ 등이 다 참고자료가 되었다. 여기서 필자가 칠진전기문학을 1세대, 2세대로 나눈 것은 이들 작품이 나온 시대가 宋元和 清末로 자연스레 구분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같은 세대 작품끼리 주고받은 영향이 밀접하기 때문이다. 1세대 칠진전기문학으로는 《金蓮正宗記》, 《七眞年譜》, 《金蓮正宗仙源像傳》 3부작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 칠진전기문학이 3부작으로 나온 이유는 이 시대 전진교의 흥성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이들 3부작의 공통점은 ①송원시대 교단내부인의 저작이라는 것이며, ②이 시대 칠진문헌에 관한 기록들을 참고하여 집대성한 ‘종교전기문학’이라는 것, ③그리고 이후의 神仙道化劇, 道情 등 많은 문인들의 작품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작품이라는 것이다.

■ 《金蓮正宗記》

元대의 전진도사 秦志安(1188-1244)은 기존의 칠진전기문학을 바탕으로

16) 원대에는 희곡이 발달한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이미 전진교와 관련된 많은 희곡이 유행하여 직간접적으로 전진교의 흥성에 이바지 하였다. 예를 들어 마치원의 《馬丹陽三度任風子》, 王世貞의 《弇州續稿》, 陶宗儀의 《南村輟耕錄》, 鄭廷玉의 《風月七眞堂》, 楊景賢의 《馬丹陽三化劉行首》, 賈仲明的 《丘長三度碧桃花》, 楊訥의 《王祖師三化劉行首》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작품이 일실되었다.

17) 道情이란 道曲, 즉 도교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희곡을 말한다. 본래는 도사들이 도교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唱的인 것이 민간으로 건너와 강창문학으로 유행하다 道曲으로 정착했다. 唐代的 《九眞》, 《承天》, 《敦煌》 등이 그것이다.

《金蓮正宗記》五卷(1241)를 지었으니, 이 책은 칠진전기문학의 효시이다. 왕중양이 전진교를 창립한 때가 金 大定7년(1167)임을 감안할 때 70여 년만에 전진교의 祖宗에 대한 일대기가 나온 것은 상당히 빠른 느낌이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등 복음서가 예수 사후 7-80년 후에 나온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¹⁸⁾ 《금련정종기》는 전진교 제1조인 東華帝君 王玄甫에서 淸靜散人¹⁹⁾ 손불이까지 전진교 五祖七眞 12인과 和玉蟾(?-1170), 李靈陽(?-1189)²⁰⁾ 등 모두 14인에 대한 사적을 전기체의 형식, 즉 인물별로 나누어 기록한 신화 색채가 농후한 작품으로 전문이 약 25,000여 자이다. 이 책의 내용으로 보아 이 시대에 벌써 칠진에 대한 신격화 내지는 숭배사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화옥섬과 이령양은 오조칠진이 아님에도 소개하고 있고, 처음으로 손불이가 칠진에 포함 되어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불이의 형상은 구도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가정과 현실에 안주하고 남편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 손불이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여러 문헌의 내용을 윤색없이 기록한 결과라 하겠다. 《금련정종기》 이전의 문헌들은 거개가 왕중양을 칠진에 포함하여 논했다. 그런데 진지안이 전진교의 祖宗으로 '五祖七眞'설을 제창하자 이후로 모두 진지안의 《금련정종기》를 따라 왕중양을 五祖에 올리고 칠진에 손불이를 넣어 논하게 되었다.

■ 《七眞年譜》

《金蓮正宗記》가 나온 지 30년 후, 元代 전진도사 李道謙(1219-1296)은

18) 기독교복음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 피폐해진 신자들에게 예수의 생애와 어록을 전함으로써 시험을 이길 힘을 주거나 당시 지배자 및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를 이해시키기 위해 시급히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복음서도 처음에는 중국의 강장문학처럼 대중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쓴 화본이었다는 것이다.

19) 散人이란 도교에서 출가한 여성의 칭호이다.

20) 和玉蟾, 李靈陽은 왕중양과 함께 鍾離權·呂洞賓으로부터 도를 전해 받고, 함께 수행하였으며, 왕중양의 전진교 창시를 도운 사람이다. 《금련정종기》에서는 이 두 사람을 왕중양과 더불어 '三祖'라 병칭하고 있다. 이들의 전기는 《金蓮正宗仙源像傳》에서 왕중양과 함께 언급되어 있고 《終南山祖庭仙眞內傳》과 《歷世眞仙體道通監續編》에도 기록되어 있다.

1271년에 《七眞年譜》를 펴냈다. 《칠진연보》는 왕중양과 칠자의 사적을 개인별, 연대별로 즉, 史傳體의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이도겸은 後序에서 자신의 저작태도에 대해 말하기를, “문헌의 출처와 사적, 흩어진 세목들의 편차를 통합하여 하나의 연보로 기록하였다. 간혹 한두 개 전기의 기록들이 왕중양 및 칠진 본인들의 문집과 상이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기의 기록을 버리고 본인들의 문집 내용에 따랐다. 이는 전기보다는 문집의 기록이 사실과 부합하기 때문이다.”²¹⁾라고 하여 엄숙한 저작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도겸이 史傳體의 연보 형식으로 이 책을 썼어도 그 내용에는 신화적 요소가 적지 않게 가미되어 있다. 이는 이도겸 본인이 전진도사신분이기도하려니와 도교라는 종교가 본래 신비주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전문이 7천여 자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칠진문학’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 《金蓮正宗仙源像傳》

1326년 元의 劉志玄·謝西蟾은 공동으로 《金蓮正宗仙源像傳》을 지었다. 이 책은 제목만 보아도 《金蓮正宗記》를 보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칠진연보》도 많이 참고하였다. 책의 첫머리에 작자의 서문이 있고, 《금련정종기》에는 없는 노자의 일대기를 쓴 ‘混元老子’ 한 편을 본문 맨 앞에 추가하고, 《금련정종기》에는 실려 있었지만 칠진과는 좀 거리가 먼 화옥섬과 이령양의 이야기는 뺐다. 서문에는 역시 저자들의 저술 동기가 있다. 말하기를, “도의 오묘한 이치는 문자로 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문자가 아니면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 책을 쓴다.”²²⁾면서 그 문자가 아니면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하려고 하였다. 이 책은 《금련정종기》와 마찬가지로 전기체 형식으로 썼고, 그것보다 나중에 출판되었지만 내용은 오히려 《금련정종기》보

21) 《七眞年譜·後序》：“出處事跡，詳節編次，通爲一譜。其或一二傳記所載，與各師眞文集不相同者，捨傳記而取文集也。蓋文集紀錄之眞，傳記有所未詳也。”(《全眞七子傳記》，505쪽)

22) 《金蓮正宗仙源像傳·序》：“大道之妙，有非文字可傳者，有非文字不傳者。此《仙源像傳》所以作也。”(《全眞七子傳記》，326쪽)

다 간략하다. 또 전기체 형식이기 때문에 장희의 구분이 아니라 《금련정종기》처럼 인물별로 分章되어 있다. 제목에 ‘像傳’이란 단어가 붙은 것은 그림을 앞에 놓고 전기를 후술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쉽게 말해서 그림이 있는 전기이다. 여기서 그림이란 소설의 내용과 관련된 그림이 아니라 混元老子에서 淸靜散人까지 13명의 특징이 없는 밋밋한 인물화이다.

2.2 二世代 七眞傳記文學

1세대의 칠진전기문학이 바탕이 되어 청말에는 칠진에 관한 ‘寶卷’ 한 편과 ‘소설 3부작’이 나왔다. 보권 《七眞天仙寶傳》은 1821년에 나왔고, 소설 3부작을 시대 순으로 나열하면 《七眞祖師列仙傳》, 《七眞因果傳》, 그리고 《金蓮仙史》의 순인데, 이 시대순은 물론 새로운 판본이 등장한다면 뒤바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 중 光緒19년(1893)에 가장 먼저 나온 《七眞祖師列仙傳》은 작자 미상이고, 光緒32년(1906)에 나온 《七眞因果傳》은 일명 《七眞傳》이라고도 하며 黃永亮의 작이다. 그리고 光緒34년(1909)에 나온 《金蓮仙史》는 潘稔의 작이다. 이 세 작품의 연원을 살펴보면 《칠진조사열선전》과 《칠진전》은 보권 《칠진천선보전》을 소설체로 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은 내용과 情節이 《칠진천선보전》과 비슷하다. 1세대 칠진전기문학과 2세대 칠진전기문학의 시간 거리는 무려 500여 년이 넘는다. 그 중간에는 아무런 칠진문학이 없다가 500여 년이 흐른 뒤에 왜 갑자기 칠진전기문학 4종이 나왔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말부터 전진교가 쇠퇴일로를 걷다가 청초부터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으며, 계제에 문학사조상 강창문학과 강창문학의 일종인 보권이 발달한 시기였고, 또 청대에 흥행한 민간종교에 전진교가 위기감을 느꼈거나 혹은 대항하기 위해서 정통 도교의 수행방법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어 칠진문학이 다시 등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 《七眞天仙寶傳》

《칠진조사열선전》과 《칠진전》의 모본이 된 《칠진천선보전》은 일명 《天仙寶傳》, 혹은 《七眞天仙傳》, 혹은 《七眞天仙寶卷》이라고도 하며, 작자미상으로 4권 32회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이 모두 韻이 있는 詩詞로 쓰여진 전진교의 道情寶卷이다. 필자가 여기서 ‘道情’과 ‘寶卷’이란 단어를 함께 쓴 것은 엄밀히 말하면 道情이고 넓게 말하면 寶卷에 속하기 때문이다. 책머리에는 道光元年(1821)에 樂山子가 쓴 서문이 있다. 내용상으로 보면 손불이가 마옥보다 수행에 적극적이고, 여기에 이미 손불이의 毀容事件이 간단하게나마 등장하며, 삼교합일의 사상이 농후하다. 특이한 것은 韓湘子是 五祖에 속해 있는 인물이 아님에도 韓湘子를 鍾離權, 呂洞賓과 더불어 왕중양의 스승으로 등장시킨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기존의 칠진에 대한 문헌기록과 많이 다르다. 그러나 신화적 요소가 많아 이미 소설 《칠진조사열선전》과 《칠진전》의 모본이 될 素地가 있었다고 하겠다.

■ 《七眞祖師列仙傳》

《칠진조사열선전》은 작자미상으로 장회의 구분이 없이 상하2권으로 되어 있다. 책의 서사형식으로만 본다면 마치 장회소설이 나오기 이전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학자들로 하여금 저작 년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아무튼 책머리에 光緒19년(1893)에 丘處機의 龍門派 제자 濮炳과 楊明法이 쓴 서문이 있고, 또 1903년에 ‘回道人’²³⁾이라 칭한 이가 쓴 서문이 있다. 이 책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향간의 괴담이 많아 목적이 있는 종교소설이라기보다는 흥미위주의 신마소설에 가깝다. 그래도 숭도역불의 사상이 비교적 농후한 것을 보면 분명한 창작 동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하권에 달마가 승복을 벗고 도사가 되어 유처현을 스승으로 모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칠진전》에 와서는 달마가 불교의 고승으로 격상되어 도·불이 대등하게 등장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칠진천선보전》과 유사한 곳이 많은 점으로 보아

23) 回道人은 呂洞賓의 별호이다. 여동빈은 또 ‘回老’라고도 하고 ‘回處士’라고도 한다.

이를 소설화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강창에서 소설로 건너온 것은 인쇄술의 발달과 경제의 발전으로 소설도 도의 전파에 훌륭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칠진전》에서 손불이가 40세로 등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 책에서는 27~8세의 젊은 부인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仙女와 같은 미모'를 훼손하며 남편 마옥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녀가 없음은 《칠진전》과 같다. '선녀와 같은 미모'란 왕중양의 말이다. 이 책 상편에서 왕중양이 (손불이에게) 말하기를, "너는 27~8세의 재학을 겸비한 멋진 청년으로 풍채가 비범하기로는 선경의 왕모낭낭이요, 두모궁의 선녀와 같으니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서 누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모두 너와 같아서야 어찌 심신을 단련할 수 있으리오? 무엇보다 미모가 큰 병이로다. 미모가 너를 해치리로다."²⁴⁾ 하였다. 《칠진전》의 작가 황영량과 《금련선사》의 작가 반창은 《칠진조사열선전》에 대하여 진리도 드러내지 못하고 졸렬한 필력으로 썼다고 혹평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칠진전》과 《금련선사》가問世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으니, 正面이든 反面이든 나름 자기 역할을 한 셈이다.

■ 《七眞傳》

《칠진전》의 원래 명칭은 《七眞因果傳》으로 상하2권 총29회로 완벽한 장회체 형식을 갖추고 있고, 본문 앞에는 작자 황영량이 光緒19年(1893)에 쓴 서문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廣東 文在茲善書坊에서 펴낸 光緒32年(1906)의 판각본이 최고본으로 그림이 없다. 오늘날 흔히 유통되는 단결출판사(1999) 판 《칠진전》은 白雲觀의 重刊本으로 癸酉年(1933)에 발행되었으며, 매회 앞에 내용과 관련된 그림이 있고, 행간에 드물게 眉批가 있다.

작자 황영량은 서문에서 스스로 구장춘의 龍門派 후학이라고 밝히고, 책을

24) 《七眞祖師列仙傳·上卷》：“王祖道：‘你年方二十七八，正是青春少年，風流儀表人材，好比王母娘娘，斗母宮內的仙女一般。世人見了，哪個不愛？都想與你如此起來，怎麼鍛鍊身心？就是美貌的大病，將你害了。’”(《全眞七子傳記》，18쪽) 참고, 두모궁의 斗母는 도교의 여신으로, 北斗의 어머니이자 甯嬰들의 어머니이다.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칠진전》은 전부터 있었는데, 그 문장은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뜻은 진리를 드러내지 못했다.……(그래서) 통속적인 언어로 이전의 전기가 못 다한 말을 들추어내고, 인정과 세태에 호소하여 어리석음을 일깨우며, 죄와 복으로 깨닫게 하고 오묘한 진리로 후세를 교화하고자 하였다.……이 책에는 황당한 말이 없고, 억지로 인심을 꼬드키지도 않았다. 하나하나가 착실하고 성실하며,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이치에 들어맞으니 세상에 반드시 있는 일이요, 인간의 常理에 벗어남이 없는 글이라.”²⁵⁾라고 하여 자기의 글에 대단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칠진전》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책보다 앞서 나온 칠진전기들과 유사지만 괴탄스럽지 않고, 필력이 우수하고 표현이 선명하며, 삼교합일 사상 등 전진교의 교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그리고 情節에 있어서도 다른 칠진전기보다 곡진한 편이다. 예를 들어 중앙선생이 分身하여 교화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칠진천선보전》이나 《칠진조사열선전》보다 의미가 깊다. 이들 두 책은 중앙선생의 分身이 도교의 신통력을 드러내거나 손불이를 격분케 하여 毀容事件을 일으키게 하는 작용만 하고 있지만, 《칠진전》에서는 보다 깊은 전진교의 진리를 드러내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칠진전》은 《칠진전》이전에 나온 칠진전기문학의 우수한 혈통을 모두 이어받은 칠진문학의 종결자라 하겠다.

■ 《金蓮仙史》

《金蓮仙史》는 광서34년(1908) 上海翼化堂刊本으로 潘昶의 작이고, 24화로 이루어졌으며, 서두에 自序가 붙어있다. 작자 본인이 창작 동기에 대해 말하기를, “내가 《七眞祖師列仙傳》을 보니 이 책은 전진교의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체도 조약하다. 또 진인들의 사적이 일교의 가치

25) 七眞一書，舊時有之。其文不足以達其辭，趣不足以輔其理……以通俗語言鼓吹前傳，以人情世態接引愚頑，以罪福醒悟人心，以道妙開化後世……此書無妄誕之言，不引誘人心，步步腳踏實地，句句言歸正理，乃世上必有之事，非人間不經之文。(《全眞七子傳記》，70쪽) 참고, 여기서 전부터 있었던 《七眞》이란 《七眞祖師列仙傳》을 말한다.

가 없을 정도로 황당하여, 혹여 읽는 이로 하여금 거짓을 진실로 여길까 두려워 이에 여러 사적과 전진교 문헌을 참고하여 이 책을 쓴다.”²⁶⁾라고 하였다. 이러한 저자 반항의 자못 진지한 창작 태도와 동기는 황영량의 창작 동기와 너무나 흡사하다. 둘 다 《七眞祖師列仙傳》의 졸렬한 필력과 환상적인 내용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실지로 《금련선사》의 내용은 전근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손불이의 형상은 구도에 소극적이고, 남존여비사상이 농후하다. 이 책 제6회를 보면, 여자는 반드시 먼저 널리 음덕을 쌓아야 하고, 그 결과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야 비로소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남존여비 관념은 1세대 칠진전기문학인 《금련정종기》나 《칠진연보》와 비슷하다. 하지만 《금련선사》는 《칠진전》과 마찬가지로 삼교합일, 삼교평등 사상의 논조를 띠고 있다. 《칠진조사열선전》과 《칠진전》이 왕중양과 칠진의 수행이야기, 그리고 종리권과 여동빈의 이야기를 섞어 봤다면, 《금련선사》는 칠진 이외에, 東華帝君, 종리권과 여동빈에 대한 이야기, 전진 南五祖에 대한 이야기까지 섭급하고 있어 《금련정종기》와 《금련정종선원상전》의 체제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七眞傳》의 人物形象

《칠진전》에는 일곱 명의 칠진 외에, 그들의 스승 왕중양이 나오고, 왕중양의 스승 종리권·여동빈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소설의 앞부분에 비록 왕중양의 수행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용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일곱 명의 칠진이고, 그 나머지 왕·종·려 세 사람은 모두 조력자 신분으로 보면 될 것이다. 등장인물을 성별로 구분해본다면 소설에는 또 두

26) 余見舊本《七眞傳》，非獨道義全無，言辭紊亂，兼且諸眞始末出典、仙跡一無所考，猶恐曳害後世，以假認真。因是遍閱鑿史實話，搜尋語錄丹經，集成是書。(《全眞七子傳記》，189쪽)
참고, 여기서 《七眞傳》은 《七眞祖師列仙傳》을 말한다.

명의 여성이 등장한다. 한 사람은 왕중양의 부인 周娘子이고, 또 한 사람은 마단양의 부인 손불이이다. 周娘子는 조력자이고 손불이는 제1주인공이다. 이 소설이 가장 공들여 묘사한 인물이 바로 손불이의 형상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손불이를 중심으로 소설이 묘사한 인물형상을 살펴보겠다.

왕중양의 부인 周娘子가 남편에게 다소곳하고 순종하고 수동적인 현모양처 형이라면 마단양의 부인 손불이는 남자다운 기개와 결단력을 지닌 능동적 호걸형이다. 《칠진전》의 작자는 손불이를 “天下奇女요, 蓋世異人”이라고 극찬하고 있다.²⁷⁾

손언정이 말했다. “당신이 이런 식견을 가지고도 남자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저 분에게 주는 것은 영생의 도를 구하고자 함이니, 우리가 도를 닦아서 신선이 되면 이깟 재산을 어디다 쓰겠어요? 한 자손이 신선이 되면 구대조까지 천당에 오를 텐데 조상님께 죄송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도란 것은 우리의 만량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제5회)²⁸⁾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도를 구하는데 주저주저하는 남편을 향해 “당신이 이려고도 식견이 있는 남자냐!”고 일갈하는 손불이는 일견 맹목적이고 격정적이다. 손불이의 이러한 거침없는 성격은 오히려 남편을 제쳐두고 한 가정을 리더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손불이는 소설 속 여러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강인한 인상을 남기고, 여러 인물형상에 가장 성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똑같은 여성신분이지만 왕중양의 부인은 소설 속에서 조력자로서 등장도 한시적이고 역할도 미미하지만, 손불이는 당당한 주인공이다. 그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봉건사회의 보통 아내와와는 상당히 다른 사고방식의 소유자다. 심지어 남편의 의식까지 변모시키는 이러한 여성의 형상화는 한 가정에서 종교신앙을 좌우하는데 있어 여성의 역할이 남편보다 더 큼을 인식하고,

27) 《칠진전·제4회》: “偏偏出了這一個孫淵貞天下奇女, 蓋世異人, 又生了這一雙認得好人的眼睛, 就認得那貧窮無靠的孤老, 是位眞仙。”

28) 《칠진전·제5회》: “孫淵貞曰: ‘枉自你是個男兒漢, 却這般沒見識, 我們把家財送與他, 是求他長生之道, 既有了道, 便修成了神仙, 要這家財何用?’ 又曰: ‘一子成仙, 九祖超升. 怎麼對不過先祖? 看來這一個道字, 比你萬貫家財值價多.’”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다. 소설에서 손불이 같은 '대장부'다운 인물형상은 종교인구의 남녀 분포도에 있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미 여신도들이 남신도들보다 많았던 것에도 기인한다고 여겨진다.²⁹⁾

소설은 총29회의 내용 중 4회부터 11회까지 8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손불이 부부의 수행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손불이의 '不二'란 영원히 한 마음으로 '도'를 지킨다는 뜻으로, 스승 왕중양이 내린 법호이다.³⁰⁾ 아마도 不二法門이란 단어에서 왔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 법호는 손불이의 성격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독특한 이름이다.

《칠진전》은 손불이의 인물묘사를 함에 있어 “용모가 단정하고 심성이 조용하며 능히 책을 읽을 줄 알았다.(容貌端莊, 心性幽靜, 且能識字觀書)”³¹⁾라는 아주 상투적인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말에서 나타나듯이 사실 《칠진전》은 같은 장회소설이라 하더라도 《紅樓夢》이나 《水滸傳》 같은 수준 높은 문학적 인물형상을 기대할 수는 없다. 또 서사에 있어서도 이들의 수행과정을 평면적이고 순차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현란한 수사나 기교, 혹은 복선, 혹은 절정 등 소설적 서사도 이들과 병론할 만하지 못하다. 《明清小說叙錄》에서는 “인물의 각색에 있어서는 기상천외하고, 이야기의 짜임새는 사실과 환상을 넘나든다.”³²⁾고 평하였으나 《홍루몽》과 같은 대작들과 비교할 때, 이는 좀 과장된 느낌이다. 또 이들의 수행과정에서 전진교의 수행론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도 소설의 재미를 더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8회는 총2,700여 자인데 이중 편폭의 9할이 왕중양의 설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빈번한 詩詞의 출현도 읽기를 더디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지 소설을 읽는 독자들의 느낌은 이상하게도 소설이 난삽하거나 교조적인 느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29) 참고, 葉怡菁, 《全眞女冠孫不二及孫不二元君法語之研究》, 43쪽.

30) 《칠진전·제7회》: “孫淵眞更取道號不二, 是永無二心之意。”

31) 《칠진전·제4회》.

32) 주2) 참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明清小說叙錄》에서 말한 것처럼, “그 필력이 이전의 것(《七眞祖師列仙傳》)보다 낫다.”³³⁾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또 이 소설을 읽는 독자가 대부분 이미 도교에 상식이 있는 신도들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지 모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傳’에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傳’이란 중국 소설의 발달과정을 살펴볼 때, 그 연원은 사기의 열전에 기원한다. 김왕규는 《한문학의 인물형상에 관한 연구》에서 “傳의 유구한 문학적 생명력은 傳 자체의 서사양식으로서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고, (중략) 대상인물을 형상화하고 일정한 포퓰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하려는 작가의 창작욕구가 서사구조나 서사 방식에 있어서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다.”³⁴⁾라고 하여, ‘傳’이란 서사양식이 다른 어떤 서사양식보다 대상인물을 보다 자유롭게 형상화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은 ‘傳’이란 형식의 문장이 보다 쉽게 독자에게 인물의 형상을 각인시켜줄 수 있다는 말로, 이로 인하여 “무슨 무슨 傳”이라는 제목은 주로 소설에 쓰이는 서사양식이기도하다. 傳의 형식으로 쓴 《성경》 속의 영웅들의 이야기는 종교성을 뛰어넘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중국고전소설에서의 ‘傳’의 내용상의 특징은 傳記小說과 傳奇小說의 범위를 흔히 서로 넘나들어 傳記小說인지 아니면 傳奇小說인지 그 차이를 명확하게 劃分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傳記小說은 어떤 사람이 살아온 사실의 행적에 근거해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傳記小說은 奇行과 異蹟과 허구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傳奇小說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칠진전》이 바로 傳記와 傳奇의 중간에 끼어 있다고 하겠다.

傳記(傳奇)小說의 주제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일 경우, 운명에 저항하거나 신분에 반항하거나, 혹은 비틀린 애정에 끝내 타협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칠진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사랑은 세속적 사랑과 다르다. 이들의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33) 주2) 참고.

34) 김왕규, 《한문학의 인물형상에 관한 연구》, 4쪽,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1995.

예를 들어 손불이의 신선과 영생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대단하지만 전혀 낭만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고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이겨야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는 험난한 가시밭길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손불이는 아래의 예문처럼 부부의 정도 끊고 서로 갈라서야 도를 이루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손불이가 남편 마단양에게 말했다. “우리가 도를 배우기 전에는 부부였지만 이제 함께 스승을 모시고 도를 배우게 되었으니, 우리는 道友가 되었어요. 저는 당신을 사형이라 부르고, 당신은 저를 도우라 부르세요. 게다가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은애를 끊어야 하니 우리는 각자 방을 따로 씁시다. 당신은 사사로이 나의 방에 오지 마시고 나도 사사로이 당신 방에 가지 않겠습니다. 일이 있으면 여중을 시켜 말해서 대청에서 논의합시다.”(제7회)³⁵⁾

부부의 인연을 끊는 것은 色을 멀리하는 것이다. 사실 《칠진전》에서 제일 먼저 부부의 인연을 끊고 안락한 집을 떠나 수행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은 스승 왕중양 본인이었다. 왕중양의 《立教十五論》 제1조가 바로 모든 수행자는 출가하여 암자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⁶⁾ 《칠진전》에서 손불이는 남편 마단양보다 먼저 부부의 인연을 끊자고 제의하고, 먼저 집을 떠나 고행을 하고, 먼저 성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금련정종기·권5》에는 “아직 부부의 정을 끊지 못하고 주저하였다.(仙姑尙且愛心未盡, 猶豫不決.)”라고 하여, 마단양이 적극적이고 손불이는 소극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사실 당시의 여러 문헌의 기록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마단양이 수행에 훨씬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洞玄金玉集·卷10》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뽀얀 얼굴에 붉은 입술, 아름다운 눈썹에 치장한 머리, 간드러진 목소리에 하늘거리는 몸짓. 하지만 그 속에는 간교한 마음 숨겼으니, 야차녀라 이름하네. 얼굴은 선

35) 《칠진전·제7회》: “孫不二對馬丹陽曰: ‘未拜師學道之前是夫妻, 如今同拜師傅, 習學妙道, 是爲道友, 我稱你爲師兄, 你呼我作道友。再者學道之人要絶恩愛, 必要分房另居, 不得你私到我這裏來, 我也不私到你那裏去, 有事商量, 可命使女往來兩下相請, 回到前廳議叙。’”

36) 《重陽立教十五論·論住庵》: “住庵凡出家者, 先須投庵。(《正統道藏·正一部》) ”

해도 마음은 모질고 본성은 악하니, 섬섬옥수 부드러운 손가락 매 발톱이 못 따르네. 선녀처럼 치장하여 사람의 性命 빼앗고, 밤 되면 더욱 수완부리네.”³⁷⁾ 심지어 같은 책 권8에는 ‘縫合陰門’이라는 거친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마단양에게 있어서 色은 철저히 끊고 버려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 그런데 만약 《칠진전》이 손불이를 소극적이고 순종적이며 봉건시대에 순응하는 형상으로 그렸다면 《칠진전》은 아마 도교신자들의 필독서가 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손불이의 형상이 기개와 결단력을 지닌 능동적 인물이라는 것만으로 《칠진전》이 소설로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칠진전》 이전의 《七眞天仙寶傳》이나 《七眞祖師列仙傳》도 이미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칠진전》만큼 성공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선이 되고 영생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를 몽상적이며 불확실한 것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추구할만한,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손불이는 스승의 말을 듣고 한 참을 말이 없다가 물러간단 인사도 없이 암자를 나와 주방으로 갔다. 그리고는 주방의 사람들을 모두 내쫓고 냄비에 기름을 따르고 스스로 불을 피워 기름이 끓기를 기다렸다. 기름이 끓자 한 바가지 냉수를 손에 들고 얼굴을 냄비로 향했다. 두 눈은 질근 감고 마음을 다잡은 후에 냉수를 냄비에 부었다. 끓는 기름에 냉수를 붓자 기름은 폭발하듯 얼굴을 향해 튀어 올랐다. 얼굴은 기름방울이 된 곳마다 화상을 입고 물집이 생겼다. 손불이는 고통을 참고 스승을 뵈러갔다. “제자가 이만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생은 손불이의 얼굴을 보고 박장대소를 금치 못하며 말했다.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세상에 이렇게 큰 뜻을 품은 사람이 있었더냐? 내가 산동에 온 보람이 있구나!”(제10회)³⁸⁾

37) 《洞玄金玉集·卷10·夜叉婆》：“扑粉施朱，畫眉補鬢，巧言令色柔和，暗藏机狡名喚夜叉婆。面善心乖性惡，纖纖指，鷹爪無過，誇體段，取人性命，入夜騎僕儷。”(《正統道藏·太平部》)

38) 《칠진전·제10회》：“孫不二聞言沉吟半晌，也不辭先生，出了茅庵來到廚下，將煮飯的人盡皆支開，親自將火燒燃，把一罐清油傾入鍋內，待油煎滾，然後取一碗冷水在手，把臉兒朝着鍋裏，雙目緊閉，硬起心腸，把冷水傾入鍋裏，那滾油見了冷水暴來，濺得一臉都是油点，油点着處皆燙成泡。孫不二忍着痛苦來見先生曰：‘弟子這個樣兒可以去得麼？’重陽先生一見拍掌笑曰：‘妙哉妙哉！世間也有這等大志向人，也不枉我到山東走一場。’”

위의 내용은 손불이가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용모를 훼손하는 장면으로, 이것도 결국 色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손불이의 용모훼손 사건은 소설 속에 나오는 마옥이나 왕처일이나 구처기나 학대통 등인이 겪은 고행에 비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것은 어쩌면 선종2대조사 혜가가 달마에게 도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왼팔을 잘라 바쳤던 斷臂求法³⁹⁾ 사건보다 더 충격적일지 모른다. 여성에게 있어서 얼굴이란 사지의 일부가 아니다. 구태의연한 말이지만 여성에게 있어서 얼굴은 생명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스승이 “꽃 같고 옥 같은 미모”⁴⁰⁾라고 했던 얼굴이 아니던가? 스승은 손불이의 울긋불긋 부풀어 오른 얼굴을 보고 그때서야 감동을 받고 즉시 음양의 묘리와 조화의 비밀, 그리고 음을 녹여 양을 이루고, 속세를 떠나 성인의 경지에 오르는 공부를 모조리 전해주게 된다.

손불이는 이렇게 숭고한 이상, 즉, 정신적 자유(도)와 육체적 자유(영생)를 열정적으로 추구한 여성이었다. 《칠진전》에서 손불이의 용모훼손 사건은 손불이 일인의 구도에의 갈망을 넘어 칠진 모두의 정신적 고결함으로 승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용모훼손사건에 있어서 《금련정종기·권5》에는 단지 “毀光容而西度終南”이라 하고, 용모를 훼손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칠진전》에 이르러서는 ‘最上乘’의 도를 이루는 하나의 커다란 사건으로 승화한 것이다. 손불이의 이러한 구도정신을 칭찬하여 소설에서는 “칠진의 수행으로 말하자면 손연정이 제일이다.”⁴¹⁾라고 했고, 《금련선사》에서는 “女仙으로서 제일이다.”⁴²⁾라고 하였다.

39) 《傳燈錄》에 나오는 혜가의 이 일화는 또 立雪斷臂라고도 한다.

40) 《칠진전·제10회》: “若見妳這容貌如花似玉豈不動心?”

41) 《칠진전·제4회》: “論七眞修行之功, 要推孫淵貞爲第一。”

42) 《금련선사·제6회》: “功成果滿詔書至, 可算女中第一仙。”

4. 《七眞傳》의 思想內容

《칠진전》은 전진교의 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덟 사람의 道號조차도 모두 전진교가 내세우는 教義와 관련이 있다. 먼저 스승 王重陽의 본명은 中孚인데 스스로 취한 도호가 中陽이다. 中陽이란 陽을 거듭한다는 의미로 陰을 배제하고 몸을 '純陽體'로 만들어 도와 통한다는 의미이다. 《칠진전·제13회》에는 “욕심이 없어지면 순양체가 되고, 순양체가 되면 음기가 소멸된다. 신선 부처가 다 이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⁴³⁾라고 말하고 있다. 이하 칠진의 도호는 모두 스승 왕중양이 제자에게 내린 도호이다. 마옥의 丹陽이란 金丹을 이룬 몸이란 뜻으로, 丹은 금단이요, 陽은 양체 곧 도의 본질을 의미한다. 담처단의 長眞이란 영원히 진리를 추구한다는 뜻이고, 유처현의 長生은 永生을 추구함이고, 왕처일의 玉陽은 옥같이 순수한 양체를 이룸이고, 학대통의 太古란 태고의 진리인 道를 추구함이며, 구처기의 長春은 장구한 봄을 의미하는데, 봄은 곧 생명이니 역시 영생을 뜻함이고, 손연정의 不二란 영원히 한 마음으로 도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다.⁴⁴⁾ 소설이 등장인물의 이름을 통하여 자기의 주의주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훌륭한 수사학적 기교이다. 여기서는 전진교의 대표적인 교의인 三教同源의 道同器殊思想과 性命雙修의 內丹思想, 淸靜無爲의 修行思想에 대해서 《칠진전》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43) 《칠진전·제13회》: “欲淨則陽純, 陽純而陰消也, 眞仙大佛, 無不從中得來。”

44) 참고, 북경 團結出版社(1999년)판 《칠진전》에 첨부된 미국인 Eva Wong의 영역본 《칠진전》의 머리말.

4.1. 三敎同源의 道同思想

소설이 어떤 사상을 독자에게 전달하려 한다면 소설의 구성이나 字裏行間에 그 사상이 녹아 있어야 가장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 《벤허》는 기독교의 교의를 전파하려는 종교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뒷모습만 보여주지 얼굴을 정면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심지어 목소리의 노출도 없고, 이야기의 흐름도 주인공 벤허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마치 독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한 이러한 배려 때문에 관중들은 거부감 없이 더욱 강한 종교적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급하게 사상을 노골적으로 전파하려 한다면 독자들은 소설이 아니라 설교집에 가까운 인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전이 아닌 이상 그 책은 외면당할 것이다. 《칠진전》을 이런 수사예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저 그런 수준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제8회는 편폭의 9할이 왕중양의 설교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소설이 나름 많이 읽혀진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여기서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들자면, 《칠진전》은 기타 다른 칠진문학과 달리 전진교의 삼교합일사상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불도 어느 종교를 가진 독자라 하더라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칠진전》은 도사들의 수행 이야기인데 책의 본 명칭이 《七眞因果傳》이란 불교식 명칭을 사용한 것만 봐도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삼교합일사상은 전진교의 커다란 특색이다. 왕중양이 《重陽眞人金關玉鎖訣》에서 말하기를, “유불도 삼교는 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비유하자면, 한 나무에 세 개의 가지가 뻗은 것과 같다.”⁴⁵⁾고 하고, 불교의 《般若心經》, 도교의 《道德經》, 유교의 《孝經》⁴⁶⁾을 일반 신도들에게 반드시 읽게 했다.

45) 《重陽眞人金關玉鎖訣》: “三敎者不離眞道也。喻曰: 似一根樹生三枝也。”(《正統道藏·太平部》)

46) 가족을 버리고 출가하여 수행하라는 것은 불교의 교리를 따름이고, 대를 이음과 가족을 중시하는 유가의 《孝經》은 서로 모순되는 사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孝經》을 중시함으로 해서 가족제도를 위협했다는 비난을 약화시킨 면이 없지 않다.

《칠진전》에서 삼교합일 사상은 주로 유처현과 구처기의 수행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주로 도교와 불교의 충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들어난다. 예를 들어, 달마의 등장(20회), 元 順帝의 영아성별조작사건(26회), 구장춘 鳩殺(짐살)사건(28회), 西風寺사건(29회) 등이 그것이다. 《칠진전》의 三教同源, 三教平等, 道同器殊思想은 설교적이 아니고 사건 자체에 내재되어 전개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학적이고 예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편폭의 제한으로 사건에 내재된 삼교평등사상을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왕중양의 설법을 통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너희들은 貪·嗔·痴·愛 네 가지 병을 없애라. 이 병이 사라지면 백가지 병이 사라지게 되고, 오래 살고 수한을 더해서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고 성현이 될 것이다. (제8회)⁴⁷⁾

위 예문은 왕중양의 설교 내용의 일부인데, 부처, 신선, 성현이란 용어를 고르게 언급함으로 유불도가 一家임을 밝히고, 수행의 목표와 경지가 동일하여 불교의 부처가 되던, 도교의 신선이 되던, 유교의 성현이 되던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다. 설교 내용 중에 貪·嗔·痴·愛 네 가지 병을 없애라는 것은 불교의 교리이고, 오래 살고 수한을 더한다는 것은 도교의 교리이다.

주색이란 병의 근원은 마음(心)과 뜻(意)에 있으니 그 병을 제거하려면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뜻을 진실하게 해야 병의 근원이 사라진다. 그 병의 근원을 제거하지 못하면 마음과 뜻이 아직 바로잡히지 않은 것이다.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면 어떤 계기만 와도 망상이 생긴다. 술을 마시지는 않았으나 마음은 이미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고, 여자와 정을 통하지는 않았으나 마음은 이미 통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 처음엔 그런 마음이 없었을 지라도 외부에서 자극을 주니(마음이 아직 바로잡히지 않은 관계로) 내면의 마음이 동요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물 가운데 비친 달그림자가 파도가 쳐 물이 움직인 즉 함께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다. 달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그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다. 이런 마음은 도를 얻을 수 없

47) 《칠진전·제8회》: “要却貪嗔痴愛之病, 此病一却, 百病不生, 可以延年益壽, 可以成佛作仙, 爲聖爲賢。”

다.(제8회)48)

위 내용은 얼핏 보아도 유교와 불교의 교리를 섞어 설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뜻을 진실하게 하라.”란 말은 《대학》의 ‘先正其心’하고 ‘先誠其意’하라라는 말은 沿用한 것이고, “물 가운데 비친 달 그림자” 이야기는 《華嚴經》의 ‘月印萬川’ 관념을 교묘하게 연용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또 “달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다.”라는 말은 6조혜능의 깃발논쟁49)을 교묘하게 연용한 느낌이다. 이처럼 전진교의 설법은 삼교의 교리를 넘나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여자와 정을 통하지는 않았으나 마음은 이미 통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말은 예수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5: 28)라는 말을 연상케 한다. 제13회에서는 “미인을 앞에 두고도 전혀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50)고 주문하고 있다. 왕중양의 설법은 이어서 참선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불가 선종의 수행방법을 차용한 것이다.

이상 예문들은 왕중양의 설법 가운데 직접적으로 드러난 삼교평등 사상이지만, 元 順帝의 영아성별조작사건이나 구장춘 鳩殺(짐살)사건처럼 사건을 통해 말하는 삼교합일 사상은, 겉으로 보기엔 도·불이 서로 잘 융화하고 화합하여 좋게 끝나고 있지만 사건의 이면에는 여전히 숭도억불의 요소가 없지 않은 바, 이러한 방법도 상당히 수사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도·불 충돌사건은 당시 실지로 도·불의 충돌이 상당히 심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48) 《칠진전·제8회》: “酒色之病根, 皆藏于心意之間, 欲去病根之道, 先正其心, 使誠其意. 而病根自斷也. 其病根之不斷者, 由心意之未正也. 心意未正, 偶發一念, 雖不會飲, 而此意已欲飲也; 雖不會通, 而此情已欲通也. 先時原無此想, 因感外而動內, 猶水中之月, 岸石激水, 水動則月亦與俱動, 雖無其實, 而形影已搖也, 眞道不可得也.”

49) 廣州 法性寺에서 있었던 일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보고 두 스님이 바람이 움직이는 걸까, 깃발이 움직이는 걸까? 논쟁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6조혜능이 “너희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고사.

50) 《칠진전·제13회》: “미인을 앞에 두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은 억지로 흔들림이 없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앞에 있어도 앞에 없는 것과 같은 경지가 되어야 한다.(美女當前而不動, 非故當前不動, 而若未當前也.)”

4.2. 性命雙修的 內丹思想

내단사상이란 外丹을 제조하던 이론과 술어를 사용하여 인체의 精·氣·神을 단련하여 신선이 되고 不死한다는 이론이다. 內丹을 단련함에 있어서 전진교는 性命雙修를 주장한다. 性命을 雙修하되 어디까지나 性이 중심이고 性을 앞세워(先性後命) 明心見性하라고 강조한다. 수행의 목적은 인간의 욕망을 끊고 하늘의 덕과 하나가 됨에 있는데, 性을 곧 天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진교에서 性은 또 眞性, 眞心, 元神이라고도 한다. 《立教十五論》 제11조 ‘混性命’에서도 성명을 닦음이 수행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性은 곧 神을 가리키고 命은 곧 氣를 가리키니, 성이 명을 만나면 마치 바람을 붙잡아 제어하듯 가볍게 날아올 수 있다. 때문에 힘은 적게 들고 일은 쉽게 완성된다. 《陰符經》에서도 ‘그 道를 붙잡아 제어하는 것은 氣에 있다.’고 하였나니,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수행자가 이러한 경지에 참여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경망스런 자에게 이를 말해서도 안 된다. 만약 이를 누설했다간 신명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듯 性命은 수행의 근본이니 삼가 성실하게 단련해야 한다.”⁵¹⁾ 고 하였다. 전진교도들은 神이란 氣가 영묘하게 응축된 어떤 형태이고, 神은 신령처럼 어떤 인격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했다. 또 神을 단련하려면 氣를 단련해야 하고, 氣를 단련하려면 精을 단련해야 한다고 여겼다. 결국 神의 단련은 精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또 정의 단련이란 색을 단련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인격을 지니려면 色을 단련함이 기본이 된다.

그날 밤, 제자들은 자다가 깨었는데 누군가 옆에 함께 자고 있음을 알았다. 손으로 만져보니 살결은 솜같이 부드럽고 옥같이 매끄러웠다. 다시 하체를 만져보니 여자의 몸이었다. 그들은 욕정이 불처럼 끓어오름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어 얽혀졌고, 眞陽이 새어나갔지만 밤새 떨어지지 않고 날이 밝을 때까지 껴안고 잤다.(제18회)⁵²⁾

51) 《重陽立教十五論·論混性命》：“性者神也，命者氣也。性若見命，如禽得風，飄飄輕舉，省力易成。陰符經云：‘禽之制在氣。’是也。修真之士，不可不參，不可泄漏于下土，恐有神明降責。性命是修行之根本，謹緊鍛鍊矣。”(《正統道藏·正一部》)

이 내용은 칠진의 이야기가 아니고 許旌陽(239-374)⁵³⁾과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로, 色의 단련을 증시해서 삼입한 故事이다. 허정양이 제자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과연 색을 탐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돈이나 술이나 권력이라면 혹 몰라도, 여색은 애초부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허정양이 꿈에 여색을 시험하니 제자들 중 아무도 여색의 관문을 아무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전진교도들은 여색을 가장 버리기 힘든 것으로 말하고 있다. 《칠진전》 제20회에서 여자란 “한 침대에서 한 베개를 베고 자도 냄새나는 가죽부대요, 분바른 해골⁵⁴⁾”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진교의 내단사상에서 또 중요한 개념으로는 功과 行이 있다. 功은 자기수련이고 行은 이타행이다. 功은 또 性功(정신)과 命功(육체)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수행자가 아무리 內丹의 수련이 잘 되었어도 이타의 德(行)과 청정한 고행(命功)이 부족하면 도를 증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제24회에서 구장춘은 타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서슴없이 내놓는다.

구장춘이 군인에게 말했다. “당신의 칼로 나의 목을 베어 잃어버린 그 사람의 목을 대신해서 가져가는 게 어떻소?” 군인이 말했다. “그의 목을 잃어버린 것은 나니 당신과 무관하오. ……다만 내가 차마 당신 목을 벨 수는 없으니 …… 당신이 만일 나의 일을 도와줄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 목을 끊으시오.” 말을 마치고 칼을 장춘에게 건넸다. 장춘이 칼을 받아 들고 스스로 막 목을 베려는 순간, 홀연히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제24회)⁵⁵⁾

우연히 만난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구장춘이 언뜻 이해가 안

52) 《칠진전 · 제18회》: “是夜, 弟子一覺睡醒來, 身旁有人同睡, 以手摸之, 溫軟如綿, 光滑似玉, 再探下體, 却是女身. 欲火忽熾, 按奈不住, 卽與之纏繆. 眞陽既泄, 猶依依不捨, 相抱而眠, 及至天明.”

53) 허정양의 본명은 許遜으로 晉의 도사이다. 송 휘종 때 ‘至道玄應神功妙濟眞君’으로 봉해졌다.

54) 《칠진전 · 제20회》: “就睡在一床, 同一個枕頭, 無非是一張臭皮囊, 陪着一個粉骷髏.”

55) 《칠진전 · 제24회》: “對軍爺說: ‘你拿刀來, 把我這顆首級割下, 以償你那個人頭何如?’ 軍爺曰: ‘人頭是我失手墜落, 與你無干. ……只是我不忍殺你. …… 你若要周全我的大事, 只可自裁.’ 說罷, 將刀遞與長春, 邱長春接刀在手, 正要自刎, 忽聲半空中有人叫.”

가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故事를 통하여 칠진이 얼마나 남의 고난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려는 어진 마음을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 적선을 行功의 하나로 알고 득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장춘 등 칠진이 얼마나 진심으로 수행을 하려고 노력했는지도 알 수 있게 한다. 목숨조차 내어주는 절대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은 더 논할 여지가 없게 만들기도 한다.

4.3. 淸靜無爲의 修行思想

淸靜無爲의 개념은 《老子》에 근거한다. '청정'과 '무위'는 비슷한 범주내에서 상응하는 개념이고, '寡慾'이라는 개념과도 잘 어울린다. 전진교에서 청정은 도의 근본이므로, 사람이 청정하면 도가 저절로 드러난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은 왜 청정하지 않은가? 욕심이 있고, 욕심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왕중양은 욕심을 제거하고 청정한 본성을 드러내려면 먼저 그 선천으로부터 온 본성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한다.

(중양선생이 말했다.) “무릇 도를 배우려는 자는 먼저 본성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저 본성이란 先天으로부터 온 것이니 그것을 잘 단련하여 원만해지고(圓陀陀) 밝게 빛나게 하면(光灼灼) 놀라운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런데 본성이 情과 없으면 용호가 미쳐 날뛰는 것처럼 무섭다. 만일 그것을 연마해서 길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광폭한 성미를 떠나 허렁불매한 경지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제7회)⁵⁶⁾

물론 여기서 본성을 다스리라는 말은 그 본성을 묶고 있는 貪·嗔·痴·愛를 없애 본성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조성하라는 것이지 그 본성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왕중양이 《重陽全真集·序》에서 말하였다. “태초의

56) 《칠진전·제7회》: “但凡學道者先要煉性，蓋性本先天之物，必須將他煉得圓陀陀，光灼灼，方爲妙用。夫性與情連，性情發動，如龍虎之猖狂。若不煉之，使其降伏，焉能去其猖狂而歸于虛無也。”

사람들은 사람마다 순박한 덕이 있어 그 본성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다. 기르
지 않아도 다스려지고, 교화하지 않아도 이치에 어긋남이 없었다. 유유자적 편
안하고 건강하고 즐거워 수를 누리지 않음이 없었다.”⁵⁷⁾ 아래의 예문은 칠진
이 본성을 잘 단련하여 위의 예문에서 말한 것처럼 “圓陀陀하고 光灼灼”⁵⁸⁾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다.

마단양이 말했다. “당신은 나를 깔보지 말아요. 내가 이래봐도 돌을 지점해서 은
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손불이가 말했다. “당신은 돌을 지점해서 은을 만들 수 있
지만, 나는 돌을 지점해서 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金銀으로는 생사를 뛰어
넘을 수도 없고 신선이 될 수도 없습니다. 금은이란 것은 아무짝에 쓸 데 없다가
요.”(제21회)⁵⁹⁾

《칠진전》에서 칠진의 수행 이야기는 대부분 고행, 청정, 과욕에 대한 이
야기이다. 위 예문이 바로 칠진이 일체의 외물에 얽매이지 않고 淸靜한 마음을
지녔음을 드러낸 말이다. ‘淸靜’과 ‘苦行’은 전진교도들이 금과옥조로 삼았던 수
행의 제일조건이었다. 《중국종교통사》는 칠진의 수행에 대해서 “마옥은 하
루 한 그릇의 면박에 먹지 않았고, 평생을 맨발로 다녔으며, 여름에 물을 마시
지 않고 겨울에는 불을 가까이하지 않았다. 왕척일은 자갈밭에서 뼈가 드러나
도록 무릎을 꿇고 (참선했으며), 맨발로 가시밭길을 다녀 사람들은 그를 鐵脚
이라 불렀다. 구처기는 반계 굴속에 살면서 하루 한 끼 걸식하여 배를 채우
고, 다닐 때는 오직 도롱이 한 개만 걸쳤으며, 6년간 잠을 자지 않았다. 그런
후에 다시 용문산에서 또 7년간 고행하기를 반계에 있을 때처럼 하였다. 학대
통은 趙州의 다리 아래에서 참선을 할 때 6년간 默言의 계율을 지켰고, 동시에
寒暑와 風雨를 무릅썼다.”⁶⁰⁾고 하였다. 《금련정종기·권3》에는 스승 왕중양

57) 《重陽全眞集·序》: “上古之初, 人有純德, 性若嬰兒, 不牧而自治, 不化而自理, 其居于自適自得, 莫不康寧享壽。”(《正統道藏·太平部》)

58) 선종용어로 圓陀陀는 성품이 모남이 없고 원만한 모습이며, 光灼灼은 밝게 빛나는 모습이다.

59) 《칠진전·제21회》: “馬丹陽曰: ‘你休小看我, 我能點石爲銀銀.’ 孫不二曰: ‘你能點石爲銀, 我能點石成金, 但金銀了不得生死, 成不了神仙. 原無用處.’”

도 마옥의 집에 와서 스스로 암자를 걸어 잠그고 100일 동안 금식했다고 되어 있다.⁶¹⁾ 이들은 왜 하나같이 淸靜과 苦行을 선택하고 감내했을까? 그것은 전진교의 중지와 관련이 있으니, 모든 수행자는 眞功과 眞行을 쌓아야 했기 때문이다. 진공이란 안으로 心과 性を 밝히고, 情과 欲을 없애는 것이고, 진행은 부끄러움을 참고 더러운 것을 견디며, 스스로 고행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다 견비해야 眞인이 된다고 여겼다.⁶²⁾ 이들의 이러한 청정과 고행은 곧 전진교의 교리와 연관이 있고, 따라서 초기 전진교의 수행자들은 모두 청정과 고행으로 유명했던 것이다. 任繼愈主編 《중국의 儒家와 道家》에도, “전진도 創敎 초기 교풍은 아주 검소했다. 도사들은 궁관을 짓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세상에서 구걸을 하여 살아갔다. 왕철(왕중양)의 7대 제자는 모두 고행승이었다.”⁶³⁾라고 하였다.

5. 結語

이상으로 우리는 《칠진전》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나, 그리고 다른 칠진전기문학과 어떤 관련이 있나 살펴보았고, 손불이의 형상을 통하여 칠진들의 수행태도를 살펴보았으며, 사상내용이라든지 주의주장을 어떻게 전달하

60) 牟鍾監·張踐, 《중국종교통사·下》, 663쪽. 칠진의 고행에 관한 내용은 《金蓮正宗記》와 《金蓮正宗仙源像傳》 등에 자세히 나와 있다.

61) 《金蓮正宗記·卷3》: “眞人謂先生曰: ‘我欲鎖庵百日不食.’” 그러나 《金蓮正宗記·卷5》 ‘손불이’ 조목에 와서는 “대정 정해년 겨울에 중앙선생이 종남에서 왔는데, 마의보(마옥)는 선생을 후대했으나 손불이는 신심이 없어 선생을 방에 가두어 두고 100여 일간 음식을 주지 않았다. 그런 후 문을 열어보니 스승의 안색은 이전보다 더욱 좋았다. 이에 비로소 믿고 받들었다. (方適大定丁亥冬, 重陽先生來自終南, 馬宜甫待之甚厚. 仙姑未之純信, 乃鎖先生于庵中百有餘日, 不與飲食, 開關視之, 顏采勝常, 方始信奉.)”고 되어 있다. 같은 책임에도 《권3》에서는 중앙선생이 스스로 100일을 금식했다고 하고, 《권5》에 와서는 손불이가 중앙선생을 100일간 굶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앙선생이 100일간 금식을 두 번 따로 따로 한 것 같지는 않으므로 명백한 오류라 하겠다.

62) 참고, 任繼愈主編 권덕주역, 《중국의 儒家와 道家》, 369쪽.

63) 참고, 위의 책, 365쪽.

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상 몇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때, 《칠진전》은 목적소설로서 그 임무를 충분히 소화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칠진이 살았던 宋遼金元 시대는 아침에 저녁 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朝不保夕'의 다급한 현실 속에 있었다. 그런데 《칠진전》은 이를 침묵하고 있고, 말하고 있어도 독자가 읽어내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구장춘이 만 리 서쪽으로 가서 칭기스칸을 만난 일이라든지, 원대 통치자와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야만적 살육을 저지하는데 많은 공을 세운 것이라든지, 또 그가 度牒을 발부해 2~3만 명의 목숨을 구한 것 등 모두 《元史·釋老傳》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다. 당시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었고, 지식인, 종교인, 일반백성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살아남기에 몸부림쳤던 시대였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이런 이야기가 빠져 있다. 다만, 반계의 군인 이야기(제24회)나, 강도 무리인 趙璧 일당을 회개시킨 이야기(제27회) 등은 당시 사회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소설은 구차기 개인에게만 포인트를 맞추어 독자들은 당시 사회현실을 읽어내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런 점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반면에 소설로서 다른 칠진문학보다 성공한 면도 보인다. 손불이의 용모 훼손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수행인은, 특히 여성 구도자는 신체를 학대하여 도를 구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듯하다. 왕처일이나 마단양의 문집을 보면 코를 베거나(截鼻) 음문을 봉하는(縫合陰門)⁶⁴ 식의 자극적인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표현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고 이해를 못하지만, 적어도 칠진의 시대에는 그러한 행위가 실지로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칠진전》에는 이러한 자극적인 표현이 없다. 이러한 면들이 어찌면 《칠진전》의 예술성을 긍정하게 하는 부분일 것이다. 문제는, 《칠진전》에서도 손불이의 '毀容精神'을 모범적인 수행인으로, 승리자의 행동으로 은근히 찬미

64) 왕처일의 《雲光集·卷一·徐福店小宮姑毀容截鼻處志慕道贈之》에는, “얼굴을 훼손하고 코를 베어 뜻을 더욱 굳게 하고, 속세의 인연을 끊고 도와 결연하다.(毀容截鼻志彌堅, 爲脫塵緣結道緣.)”라는 말이 있고, 마단양의 《洞玄金玉集·卷八·興平郭姑來投全眞堂下修行》에는 “꼭써 부인은 남자의 기개가 있어 속세의 인연을 끊고, 생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났으며, 남편을 멀리하기 위해 음문을 봉하였으니 자고로 이런 일이 없었다.(郭姑姑, 男兒志, 割擷塵情, 畏其生死, 遠本夫, 縫合陰門, 自古今無二.)”라는 말이 나온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단지 소설일 뿐이라는 인식으로만 이 《칠진전》을 읽는다면 읽기 전이나 읽은 후나 우리는 여전히 ‘是此等人’이 될 것이다.

아무튼 절대적 초월신에 대한 믿음과, 영생에 대한 갈구가 《칠진전》의 주제이고, 《칠진전》 속의 칠진은 우리에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것을 추구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칠진은 道를 구해 道를 증득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쩌면 지금도 肉으로 물질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 參考文獻 >

- 黃永亮, 《七眞傳》, 團結出版社, 1999
- 林世田等編校, 《全眞七子傳記》, 宗教文化出版社, 1999.
- 詹石窓, 《南宋金元道教文學研究》, 上海文化出版社, 2001.
- 苟波, 《道教與神魔小說》, 巴蜀書社, 1999.
- 任繼愈主編, 권덕주역, 《중국의 儒家와 道家》, 동아출판사, 1993.
- 이원국저, 김낙필등역, 《내단: 심신수련의 역사2》,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 구보노리따다, 최준식역, 《道教史》, 분도출판사, 1990.
- 任繼愈主編, 《中國道教史》, 上海人民出版社, 1990.
- 具載會, 《全眞教 龍門派 修行論에 대한 研究》,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석사논문, 1998.
- 溫睿滢, 《全眞七子傳記及其小說化研究》, 臺灣國立政治大學 中國文學研究所, 2002.
- 羅憶南, 《全眞教的七眞崇拜與相關宗教神話研究》, 黑龍江大學 文學院碩士論文, 2008.
- 葉怡菁, 《全眞女冠孫不二及孫不二元君法語之研究》, 臺灣國立成功大學 歷史研究所碩士論文, 2003.

< 中文摘要 >

《七眞傳》是記錄了全眞教的創始者王重陽及其弟子(全眞七子)修行過程的章回體宗教

小說。此小說在清末光緒32年(1906)發行，自流傳世間以來，給無數的讀者傳達了道教的真理和思想，同時帶來了信仰上的感動，並且以給修行者帶來莫大的安慰和鼓勵為目的的小說，也是目前為止忠實地擔當其作用的小說。它和其他目的性小說一樣，《七真傳》很大部分也具有教育性和說教性，從這一層面上看，《七真傳》是完全不同于重視藝術性的純粹小說或通俗小說。如果說純粹小說或通俗小說是以樂趣為目的的話，那麼宗教小說則是以教導乃至道義傳播為目的。當然小說不管出于何種目的，如果過於教條或抽象的話就會失去藝術性以致于不能達到目的。如果從這一層面上來看，《七真傳》即使小說的藝術性一般，但是却可以斷定它是一部實現了所期目的的作品。

本論文并不是想要重新審查全真教的教義或歷史，修行方法，而是去了解《七真傳》這本小說是如何問世及其形成背景。筆者以小說的內容為中心，特別是通過孫不二的修行過程來觀察作者刻畫出的人物特徵，以及通過向讀者傳達出的主義主張來論究小說的思想內容。筆者在研究的過程中，是以北京團結出版社1999年發行的單行本《七真傳》，和林世田等校對的北京宗教文化出版社1999年刊行的《全真七子傳記》為底本進行闡述的。以《全真七子傳記》為底本的理由是因為這一本書內除了《七真傳》外，還把與‘七真’有關的著書《七真師祖列仙傳》和《金蓮仙史》以及《金蓮正宗仙源傳》，《金蓮正宗記》，《七真天仙寶傳》，《七真年譜》等7冊合成在一起，為研究帶來了很大的便利。

關鍵詞：七真、七真傳、全真教、內丹思想、三教同源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3. 26.	2013. 5. 8.	2013. 5. 20.	2013. 5. 24.	2013. 5. 31.